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제1장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

I. 예산안 개요

1.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5,062억 4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3,907억 1천 6백만원 대비 1,155억 3천 3백만원(29.6%) 증액됨.
 -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4,243억 1천 5백만원, 보조금 578억 4천 9백만원, 지방채 24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천 6백만원을 각각 편성함.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293억 7천 8백만원으로, 글로벌마케팅센터(구 국제유통센터) 건물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251억 4천 1백만원, 서울영화센터 관람료 수입 등 ‘사용료수입’ 22억 5천 6백만원, 서울영화센터 멤버십 수입 및 교육사업 수입 등 ‘사업수입’ 8억 2천 4백만원,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정산이자 등 ‘이자수입’ 11억 5천 7백만원으로 구성됨.

- 임시적 세외수입은 3,945억 9천만원으로, DMC 교육첨단 용지와 DMC 홍보관 용지 매각수입인 ‘재산매각수입’ 3,680억 4백만원, 자치구 보조사업 정산 잔액 등 ‘보조금반환수입’ 208억 8천 5백만원, 서울형 R&D 기술료, 환수금 등 ‘기타수입’ 57억 2백만원 등임.
- 지방행정재·부과금¹⁾은 4천 6백만원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인 ‘과태료’ 4천 6백만원임.
- 지난연도 수입²⁾은 수입당해연도 이전에 부과한 체납 세입의 징수금 등 ‘지난연도 수입’ 3억원임.
- 보조금은 578억 4천 9백만원으로, 서울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고보조금’ 564억 9천 8백만원과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억 5천 1백만원임.
- 지방채는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모집공채인 ‘국내차입금’ 240억원으로 2026년 12월 7일로 만기도록 예정인 지방채 240억원의 상환을 위한 것임.
- 그 밖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천 6백만원으로, 공공기관 국고보조금 교부금 사용잔액인 ‘보조금등반환금’ 8천 6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국고보조금 전액(250억원)이 2025년에 교부 완료됨에 따라 2026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음.

1) 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2021년부터 임시적 세외수입(220)에서 지방행정재·부과금으로 분리·신설되었음.

2) 2025년도 예산편성부터 임시적 세외수입(220)에서 지난연도 수입으로 분리·신설되었음.

<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세부세입예산안 >

구 분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90,716	506,249	115,533	29.6
일반회계(계)		386,994	506,249	119,255	30.8
세외수입	세외수입 소계	328,683	424,315	95,632	29.1
	소계	203,210	29,378	△173,832	△85.5
	재산임대수입	24,242	25,141	899	3.7
	사용료수입	5,488	2,256	△3,232	△58.9
	사업수입	172,317	824	△171,493	△99.5
	이자수입	1,164	1,157	△7	△0.6
	소계	124,944	394,590	269,646	215.8
	재산매각수입	101,643	368,004	266,361	262.1
	보조금반환수입	20,811	20,885	74	0.4
	기타수입	2,489	5,702	3,213	129.1
보조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	46	31	206.7
	지난연도 수입	513	300	△213	△41.5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58,157	57,849	△308	△0.5
	국고보조금등	58,157	57,849	△308	△0.5
지방채		—	24,000	24,000	신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4	86	△68	△44.2
도시개발특별회계(계)		3,722	—	△3,722	△100.0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3,722	—	△3,722	△100.0
	국고보조금 등	3,722	—	△3,722	△100.0

나. 세출예산안

1) 총괄

-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7,296억 6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7,082억 5천 6백만원 대비 3.0%(214억 7백만원) 증액됨.
-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와 사업비, 재무활동비를 포함하여 6,864억 7천 2백 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비만 431억 9천 1백만원이 편성됨.
 -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0억 6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재무활동(649억 5천 1백만원)은 213억 1천 4백만원(48.8%)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15억 1천 4백만원)는 5천 6백만원(3.6%), 사업비(6,200억 8백만원)는 223억 2천 2백만원 (3.5%)이 각각 감액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24억 7천 1백만원(108.5%)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사업비(431억 9천 1백만원)에 해당함.

<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세출예산안 개요 >

구 분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총 계		708,256	729,663	21,407	3.0
일반회계	소 계	687,536	686,472	△1,064	△0.2
	행정운영경비	1,569	1,514	△56	△3.6
	재무활동	43,637	64,951	21,314	48.8
	사업비	642,330	620,008	△22,322	△3.5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 계	20,720	43,191	22,471	108.5
	사업비	20,720	43,191	22,471	108.5

2) 사업별 분류(정책-단위-세부)

- 2026년 경제실의 사업구조는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 114개로 계층화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 1,187억 원

-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9억 3천 9백만원
- 서울형 R&D 지원	425억 8천 2백만원
-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46억 3천 2백만원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22억 7천만원
-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원(국가직접지원)	5천만원
-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21억 8천 7백만원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15억 원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국가직접지원)	6억 원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16억 원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11억 7천 9백만원
-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13억 8천 8백만원
- 서울퓨처랩 운영	14억 1천만원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10억 9백만원
-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564억 6천 8백만원
- 미래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8억 원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 10억 3천 3백만원

- 서울 테크 스페이스(서울창업허브 구로) 조성	10억 3천 3백만원
----------------------------	-------------

【 좋은 일자리로 시민 삶을 지키는 서울 】 2,539억 5천만원

- 서울 동행일자리	962억 6천 9백만원
- 서울 매력일자리	733억 4천 7백만원
- 새벽일자리쉼터 운영	2억 5천 3백만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전환사업)	51억 2천 9백만원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7억 1천 4백만원
-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	8억 7천 3백만원
- 일자리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1천 8백만원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01억 5천 7백만원
-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11억 9백만원
-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	5억 5천 1백만원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431억 4천 3백만원
- 서울시 일자리센터 활성화	12억 4천 3백만원
-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10억 1천만원
- 일자리카페 운영	6억 1천 5백만원
-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23억 2천 3백만원
-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43억 5천 6백만원
-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활성화(국가직접지원)	16억 9천 5백만원
- 서울형 이음공제	11억 4천 4백만원

【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 331억 7천 4백만원

-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162억 6천 8백만원
-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29억 9천만원
-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14억 4천 6백만원

-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8억 3천 8백만원
-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10억 6천 4백만원
- 서울창업센터 관악 운영	5억 5천만원
-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18억 1천 1백만원
- 서울창업허브 M+ 운영	45억 1천 6백만원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국가직접지원)	11억 9천만원
-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운영	12억 1천 1백만원
-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9억 7천 5백만원
-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3억 1천 4백만원

【 캠퍼스타운 】 4억 7천 1백만원

-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 관리 · 운영	2억 8천 2백만원
-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운영	5천만원
- 캠퍼스타운 성과평가	1억 3천 9백만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819억 6천 6백만원

-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 등 RISE 대외협력 추진	6천 8백만원
- 서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818억 9천 8백만원

【 금융 ·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 282억 3천 6백만원

-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지원	53억 7백만원
- 서울핀테크랩 운영	83억 3천 2백만원
-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20억 2천 8백만원
- 금융전문인력 양성	1억 1천만원

- 서울 펀테크 위크 개최	4억 원
- 서울투자진흥재단 운영	88억 5천 1백만원
-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4억 9백만원
- 투자유치기반조성(현금지원)(국가직접지원)	28억 원

【 창의적인 미디어 콘텐츠 환경 구축 】..... 519억 9천만원

- 서울영화센터 운영	96억 7천 4백만원
- 엔터테크 서울 개최	15억 2천만원
- 상상비즈 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	15억 4천 9백만원
- 확장현실(XR) 융합산업 시험기반 구축(국가직접지원)	8억 6천만원
- 확장현실(XR) 산업 활성화	5억 3천 4백만원
-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26억 3천 9백만원
-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13억 1천만원
- 미디어콘텐츠센터 운영	14억 2천 6백만원
- 영상산업 지원	30억 2천만원
- DMC 활성화	3억 9천 9백만원
- 상상산업 기반 조성	8백만원
- 서울 드라마어워즈 지원(국가직접지원)	3억 5천만원
-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	286억 9천 9백만원

【 뷰티패션산업 활성화 】..... 284억 1천 7백만원

- 서울패션허브 운영	52억 3천 1백만원
- 하이서울쇼룸 운영	11억 7천 2백만원
- 뷰티 패션 스튜디오 운영	4억 7천 6백만원

- 뷰티산업 육성 지원	12억 8백만원
- 서울뷰티워크 개최	11억 4천만원
- 서울패션워크 개최	55억 7천 9백만원
- 서울패션로드 운영	9억 9천만원
-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6억 4천만원
- 서울시제조지원센터 운영	44억 7천 7백만원
- 도시제조업 지원	5억 9천 8백만원
- 서울도시제조허브 운영	33억 3천 3백만원
-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21억 5천 2백만원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	12억 7천 1백만원
- 지역특화 프로젝트 운영 지원(국가직접지원)	1억 5천만원

【 바이오 · AI산업 활성화 】..... 502억 7천 4백만원

-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144억 9천 4백만원
-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20억 2천만원
-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운영	12억 1백만원
- 양자기술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	5억 3천 6백만원
-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44억 9천 2백만원
-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175억 3천 2백만원

【 전략산업 기반 마련 】..... 81억 3천만원

-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9억 3천 6백만원
-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7억 1천만원
- G밸리 창업복지센터 운영	7억 4천 8백만원

- G밸리 유망 스타트업 육성	2억 5천 2백만원
- G밸리 산업박물관 운영	6억 8천 1백만원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2천만원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운영	24억 2천 3백만원
- 서울인쇄센터 운영	6억 1천 6백만원
- 뿌리산업 지원	16억 3천 2백만원
- SETEC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2천 5백만원
- 공장설립정보망 운영비 지원	8천 7백만원

【 과학기술 진흥 】..... 76억 9백만원

-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	4억 3천 5백만원
-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	4억 3천 6백만원
- 기관연계 및 홍보	5천 5백만원
-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	3억 9천 5백만원
- 융합과 소통의 신규 전시 개발	7억 5백만원
-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4억 4천 3백만원
- 과학문화행사 및 교육협력 강화	1억 4천 2백만원
- 메이커 페어 서울	2억원
- 홈페이지 및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관리	9천 9백만원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	38억 1천 6백만원
- 동행로봇 발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억 3천 2백만원

3) 성과계획서

- 경제실은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2026년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1개, 성과지표 22개를 설정하고, 전년 대비 534억 4천 5백만원이 증액된 7,296억 6천 3백만원을 편성함.

< 2026년도 경제실 성과계획 >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개수	지표수			
경제실	1	11	22	23	729,663	676,218
						53,445

< 2026년도 성과지표별 예산 및 목표치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과지표명(단위)	구분	해당예산	목표치	전년대비 목표증감사유
미래산업 분야 R&D 지원건수(건)	2026	19,200	71	미래산업 분야 사업의 평균 3년 실적에 따른 목표치 증가
	2025	19,500	64	
	증감액	△300	7	
테스트베드 실증지원 수(개)	2026	8,800	40	2025년 목표치와 동일하게 설정
	2025	8,000	40	
	증감액	800	–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수(명)	2026	43,143	4,000	캠퍼스 확장 및 대학 등 인프라 활용에 따른 교육 규모 고려하여 상향 조정
	2025	44,404	3,400	
	증감액	△1,261	600	
청년인턴 직무캠프 교육 수료율(%)	2026	4,356	93	지난 3개년(23~25년) 사전 직무 교육 평균 수료율 반영하여 상향 조정
	2025	4,317	90	
	증감액	39	3	
서울 동행일자리 참여자 수(명)	2026	96,269	13,657	최근 3년간 목표 참여인원 대비 실제 참여인원 비율(124%)을 고려하여 목표치 현실화
	2025	94,291	11,500	
	증감액	1,978	2,157	
서울창업허브 및 거점별 특화 창업센터 창업기업지원 수(개)	2026	26,059	1,450	창업기업 지원 사업 강화를 통한 점진적 상향 조정
	2025	27,336	1,350	
	증감액	△1,277	100	
창업지원센터 오픈이노베이션 참여 대·중견기업 수(개)	2026	25,221	120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추진 확대로 목표수 증가
	2025	26,505	110	
	증감액	△1,284	10	

(단위 : 백만원)

성과지표명(단위)	구분	해당예산	목표치	전년대비 목표증감사유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 육성 수(개)	2026	471	15	2025년 목표치와 동일하게 설정
	2025	3,708	15	
	증감액	△3,237	—	
첨단·창조산업 등 서울 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수(연간)(명)	2026	66,366	3,400	2025년 목표치와 동일하게 설정
	2025	58,198	3,400	
	증감액	8,168	—	
캠퍼스타운 창업팀 육성 수(연간)(팀)	2026	15,600	650	'26년 캠퍼스타운 사업 수행 대학 13개소로 축소('25년 20개소) ※ 대학별 연간 50팀 발굴 목표
	2025	19,950	1,000	
	증감액	△4,350	△350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발굴(개)	2026	8,851	340	'25년 실적 321개(10월 기준) 대비 5% 이상 목표치 증가
	2025	5,298	300	
	증감액	3,553	40	
서울핀테크아카데미 수료자 수(명)	2026	90	700	기수별 서울핀테크아카데미 수료자 누적 수치 (기수별 수료자 수 80여명)
	2025	170	620	
	증감액	△80	80	
XR·게임 지원기업 수(개)	2026	4,033	92	'25년도 예상실적(87건) 및 최근 3년간 지원기업 수 증가율(약 8%) 반영 ※ e스타디움 개보수(11억 원), XR센터 조성(20억원) 완료에 따른 예산 축소
	2025	7,562	55	
	증감액	△3,529	37	
창조산업 인력양성 수(명)	2026	4,420	387	영화창작공간 공간 제한, 1인 미디어 예산 축소, 상상비즈 아카데미 실적 반영하여 목표 현실화
	2025	4,344	387	
	증감액	76	—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인재 양성 수(명)	2026	380	300	전년도 수료율 및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2025	380	300	
	증감액	—	—	
K-패션 브랜드 육성 프로그램 참여 기업 수(개)	2026	5,231	400	※ 성과지표 변경 육성기업 및 판로다각화 프로그램 참여 기업수로 산정
	2025	7,627	400	
	증감액	△2,396	—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시설 우수창업기업 육성 수(개(누계))	2026	14,494	325	사업 추진에 따른 우수 바이오·의료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수(누적) 고려하여 목표치 조정
	2025	13,809	305	
	증감액	685	20	
서울 AI 허브를 통한 우수창업기업 육성 수(개(누계))	2026	17,532	265	사업 추진에 따른 우수 AI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수(누적) 고려하여 목표치 조정
	2025	15,797	240	
	증감액	1,735	25	
G밸리 유망스타트업 지원기업 수(개)	2026	252	87	전년도 실적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상향 조정
	2025	257	75	
	증감액	△5	12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컨설팅 제공 건수(개)	2026	2,423	100	전년도 실적 및 기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목표치 상향 조정
	2025	2,453	90	
	증감액	△30	10	
과학관 방문객 및 이용자 수(계수기 인원, 온라인 제외)(명)	2026	7,609	205,755	과학관 이용자 증가
	2025	7,317	139,267	
	증감액	292	66,488	

(단위 : 백만원)

성과지표명(단위)	구분	해당예산	목표치	전년대비 목표증감사유
이용자 거주지 균등성	2026	7,609	0.34	과학관 이용자 증가
	2025	7,317	25	
	증감액	292	△24.66	

4) 성인지예산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기본계획을 토대로 여성 가족정책실에서 연단위 사업을 지정, 관리하는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과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장의 공약 또는 주력사업으로 지정하는 「자치단체특화사업」, 상기 사업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기타사업」으로 구분됨.
- 2026년도 경제실 성인지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2,492억 5천 3백만원 대비 1.1%(27억 3천만원) 증가한 2,519억 8천 3백만원이 편성됨.
- 경제실은 여성 중소기업·일자리·창업 지원, 전문교육 제공 등 공평한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여 성별 격차를 완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16개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설정했으며, 이중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은 1개, 성별영향평가사업은 3개, 자치단체특화사업은 9개, 기타사업은 3개임.

< 성인지예산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25년 당초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
합계	-	249,253	251,983	2,730
서울 동행일자리	성별영향	94,291	96,269	1,978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2025년 당초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
서울 매력일자리	특화(기타)	71,130	73,347	2,217
지역공동체 일자리(전환사업)	특화	4,975	5,129	154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특화	714	714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특화(기타)	44,404	43,143	△1,261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양성평등	1,010	1,010	-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성별영향	4,317	4,356	39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특화(기타)	17,234	16,268	△966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특화	3,174	2,990	△184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특화	1,249	1,446	197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특화	831	838	7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특화	894	1,064	170
서울창업센터 관악 운영	특화	595	550	△45
도시제조업 지원	성별영향	1,542	598	△944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특화	460	443	△17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	특화		3,816	434

* 기타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양성평등, 성별특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 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

5) 기후예산

- 기후예산제는 예산·기금이 투입되는 시정의 모든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기금의 수립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온실 가스 배출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임.
- 현재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결산서 제출 시 기후예산서를 첨부할 의무는 없으나,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선도적으로

기후예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6년도 경제실의 기후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올해 당초예산 223억 3천 8백만원 대비 99.4%(222억원) 증가한 445억 3천 8백만원이 편성됨.
- 기후예산 대상사업은 서울 테크 스페이스(서울창업허브 구로 조성),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등 사업 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배출사업 2개와 배출과 감축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사업 2개가 편성됨.

< 2026년 경제실 기후예산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분류	2025년도 당초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	증감률
합계	-	22,338	44,538	22,200	99.4
서울 테크 스페이스(서울 창업허브 구로) 조성	혼합	3,225	1,033	△2,192	△68.0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	배출	8,332	28,699	20,367	244.4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 사업 지원	배출	10,483	14,492	4,009	38.2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혼합	298	314	16	5.4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가. 신규사업

- 2025년도 최종예산 대비 신설된 사업은 1개 사업으로 미래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8억원이 신설됨.

< 2026년도 신규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사유
합 계	800	
미래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800	미래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나. 완료사업

- 2025년도에 완료된 사업은 7개, 20억 3천 2백만원으로, 사업기간 종료 3개, 단년도 사업 1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사업 1개, 타 부서로 사업 이관 1개, 사업 추진 필요성 부족 사업 1개 등임.

< 2025년도 완료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산(안)	감액사유
소 계(7개 사업)	(X487) 2,032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X78) 168	-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2024년부터 신규사업 공모 없이 계속사업만 추진 후 2025년 사업 종료 예정(일몰사업)
2025년 직장적응 지원	(X333) 333	-	고용노동부 공모 단년도 사업
청년창업꿈터 운영	178	-	유사·중복사업 통합 및 축소 등 반영
창업생태계 실태조사	82	-	2023년 서울 창업생태계 전반 실태조사 완료. 2024~2025년 창업관련 개별 주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2026년 추가 실태조사 필요성 부족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X76) 252	-	자원순환과로 사업 이관('26.1.1.)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산(안)	감액사유
투자유치기반조성(서비스형 외투지역 임대료 지원)	450	-	기 지원중인 외국인투자기업 1개사 '25년 지원 종료
서울RAIM 로봇, AI 동행매력 정원 조성	450	-	사업종료

3. 주요 증·감액 사업

가. 증액사업

- 2026년도 세출예산 중 전년대비 15% 이상 증액된 사업은 ▶새벽일자리쉼터 운영,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 등 RISE 대외협력 추진 등 23개 사업이며, 증액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증액사업 현황(15% 이상)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5년도 당초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		증가사유
				증 감	비율 (%)	
1	새벽일자리쉼터 운영	167	253	86	51.9	'26년 생활임금 상승분(2.9%) 반영
2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1,249	1,446	197	15.8	Age-Tech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 및 오픈이노베이션 신규사업 반영 증액
3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894	1,064	170	19.1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증액
4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847	975	128	15.1	중장년 창업 수요증가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 운영 확대
5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 계정 전출	33,410	40,850	7,440	22.3	기 조성 펀드 출자예상액 및 신규펀드 출자금 고려하여 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5년도 당초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		증가사유
				증 감	비율 (%)	
6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 등 RISE 대외협력 추진	58	68	10	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위원회 및 간담회 개최 횟수 고려하여 사무관리비 절감 추진 사업특성상, 홍보 등 대외협력분야로 판단되어 기존 '기업성장센터' 사업에서 통계목 이동
7	서울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추진	(X43,998) 65,648	(X56,498) 81,898	(X12,500) 16,250	2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캠퍼스타운 대학 사업 종료 및 신규대학 선정(13개소) 서울 RISE 국비 추가 인센티브액 반영 서울 RISE 단위과제 3개 신규 추진(AI관련학과지원, AI계약학과, 서울라이즈텐챌린지)
8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지원	472	5,307	4,835	102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임차료 등 (세부사업 변경, '25년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 → '26년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지원)
9	서울투자진흥재단 운영	5,298	8,851	3,553	6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 확대 등 인건비 증가 / 사무실 공사비, 전산개발비 등 재단신설에 따른 운영비 증가 / 핵심 개발자 마케팅, 투자유치 전략수립, 투자환경 브랜딩 등 사업비 증가 등
10	엔터테크 서울 개최	285	1,520	1,235	4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P(Seoul Promotion Plan, 콘텐츠 비즈니스 교류 행사), XR 페스티벌 등 통합 추진
11	DMC 활성화	56	399	343	6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협력센터 내 노후화된 승강기 2대 교체
12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	8,332	28,699	20,367	24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공정률 고려 반영
13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360	640	280	7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밀라노를 교두보로 유럽 및 글로벌 패션시장 본격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패션우크 연계 프로그램 운영 확대
14	서울시재난지원센터 운영	3,803	4,477	674	1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북패션제조지원센터 신규조성 및 이전 원상복구 따른 공사비 증액 등
15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953	2,020	1,067	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교기정통부)의 강소특구 육성사업 국비 매칭에 따라 시비 매칭 증가
16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 원센터 운영	966	1,201	235	2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인상분 반영 및 'G밸리 유망기업 육성' 등 사업비 증액
17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 사업 지원	(X3,722) 10,483	14,492	(X3,722) 4,009	3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별 시공단계 진입에 따라 사업비 증액
18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 지) 활성화	10	710	700	7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천구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시비보조 신규 편성
19	뿌리산업 지원	602	1,632	1,030	1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기계금속 제조지원센터를 뿌리산업 지원 허브로 개편하여 수행기관 변경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5년도 당초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		증가사유
				증 감	비율 (%)	
20	SETEC 공유재산 손해보 험료	21	25	4	18.4	• '26년 예상 보험료 반영하여 증액
21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	323	435	112	34.6	• 공무직 퇴직예정자(2명) 촉탁직 전환 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증가 등
22	융합과 소통의 신규 전 시 개발	418	705	287	68.5	• 기획전시실 확대에 따른 기획전 개최 비용 증가 및 다양한 기획전 개최 확대 등
23	동행로봇 빌명 교육프로 그램 개발 및 운영	100	132	32	32.5	• 참여 자치구 확대

나. 감액사업

- 세출예산 중 완료사업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15% 이상 감액된 사업은 ▶공동 협력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서울 테크 스페이스(서울 창업허브 구로) 조성, ▶서울시 일자리센터 활성화 등 24개 사업이며, 감액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주요 감액사업 현황(15% 이상)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2025년도 당초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	
1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5,739	(X240) 4,632	(X240) △1,107	△19.3	• 사업 기간 만료('21~'25)로 종료 과제 발생 등
2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3,116	2,187	△929	△29.8	• 주요 경제단체 지원 보조금 감액 등 예산 축소
3	서울 테크 스페이스(서 울창업허브 구로) 조성	3,225	1,033	△2,192	△68.0	• 연차별 공사계획에 따른 편성 - 25년: 설계공모, 설계비 등 - 26년: 설계비 잔액 등
4	서울시 일자리센터 활성화	1,612	1,243	△369	△22.9	• 일자리포털 재구축 완료에 따 른 전산개발비 감액
5	일자리페 운영	1,297	615	△682	△52.6	• 일자리카페 개편에 따른 지원 규모 축소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2025년도 당초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	
6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활성화(국기적특지원)	1,999	1,695	△304	△15.2	·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해 시-대학 간 매칭 비율 조정
7	국고보조금 반환	224	100	△124	△55.3	· 국비 집행잔액 감소 예상에 따른 감액 조정
8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국기적특지원)	1,437	1,190	△247	△17.2	· 유사사업 통합 추진에 따른 사업비 조정
9	캠퍼스디운 기업성장센터 관리운영	2,188	282	△1,906	△87.1	· '26.4.30. 민간위탁 사업 종료 후, 기존 민간위탁비로 운영되던 시설(시유재산)의 유지·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편성 · '26.4.30. 민간위탁 사업 종료로, '26.4월까지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등 감소 등
10	캠퍼스디운 성과평가	200	139	△61	△30.7	· '26년 용역기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
11	금융전문인력 양성	230	110	△120	△52.2	· 디지털금융 전문세미나 사업 종료 후 디지털금융대학원, 핀테크아카데미 사업과 통합 편성, 핀테크아카데미운영기수조정등
12	서울영화센터 운영	18,124	9,674	△8,450	△46.6	· 서울영화센터 준공 완료 · '25년 2개월 운영기간에 비해 '26년 본격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 증가 등
13	특집분설(XR) 산업 활성화	2,935	534	△2,401	△81.8	· XR센터 조성 완료 · XR 기술개발 지원 단가 조정
14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3,767	2,639	△1,128	△29.9	· 서울e스타디움 시설 개보수 완료
15	상상산업 기반 조성	304	8	△296	△97.4	· 상상비즈 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 사업으로 통폐합 · 상상비즈플랫폼 상반기 유지보수비 반영(하반기는 市 누리집, 공공서비스 예약으로 통폐합 예정)
16	서울 모비아워즈 지원(국기적특지원)	750	350	△400	△53.3	· 민간자원 등 유치 통한 수행 위해 지원금 감액
17	서울패션허브 운영	7,627	5,231	△2,396	△31.4	· 서울패션허브 창업뜰 운영 종료(25.4.)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비, 임차료, 운영비 등 감액
18	하이서울쇼룸 운영	1,422	1,172	△250	△17.6	· 민간위탁 종료 예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반영한('26.1. ~ 11.) 민간위탁금 감액
19	도시재조업 지원	1,542	598	△944	△61.2	·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지원사업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치구(광진구, 동대문구) 지원 종료에 따른 감액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2025년도 당초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	
20	서울도시재조성본부 운영	4,199	3,333	△866	△20.6	• 뿌리허브에서 통합 지원하는 기계 금속분야 지원 제외에 따른 감액
21	도시재조업 작업환경개선	4,552	2,152	△2,400	△52.7	• 최다수요 품목의 평균 단가 적용 (700만원→300만원)에 따른 감액
22	양자기술 상용화 조성 및 산업 육성	635	536	△99	△15.7	• 양자산업 종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 완료에 따른 예산 미편성
23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2,131	936	△1,195	△56.1	• DMC 감정평가비 미편성 및 '25년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실 적 반영하여 일부 감액
24	체험문화형 전시실 운영	515	395	△120	△23.3	• 종장기 전시개선 기본계획 수 립 사업 종료 등

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2026년 경제전망

-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은 기관별로 2.7%~3.1%³⁾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은 수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과 선제적 수출 효과의 축소로 인해 수출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금리 하락과 확장적 재정 정책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건설투자의 부진 완화 등에 따른 내수 회복으로 국내 경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원·달러 환율 상승과 글로벌 무역 갈등 확대의 가능성은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인구구조 및 주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하락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은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1.8%, 기획재정부 1.9%, 한국은행 1.6%, 국회예산정책처 1.9%, OECD 2.2%, IMF 1.8%로 전망함.

〈 주요 기관의 2026년 국내 성장률 전망 현황 〉

(단위 :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5.11)	기획재정부 (2025.8월)	한국은행 (2025.8월)	국회예산정책처 (2025.9월)	OECD (2025.9월)	IMF (2025.10월)
1.8	1.9	1.6	1.9	2.2	1.8

3) IBRD : 2.7%, OECD : 2.9%, IMF : 3.1%,

- 한편 정부는 2026년 예산편성 시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기초로 ▶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강조하며 총 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8.1%(54.7조) 증가한 728조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함.
- 또한 ▶ AI 3강을 위한 대전환, ▶ 신산업·R&D 혁신, ▶ 통상현안대응·수출 지원, ▶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 ▶ 지방거점성장, ▶ 저출생·고령화 대응, ▶ 촘촘한 사회안전망, ▶ 민생·사회연대경제, ▶ 산재예방·취약노동자 보호, ▶ 재난 예측·예방·대응, ▶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등의 중점 투자방향을 제시함.
- 그리고 서울시는 ‘동행·매력특별시 2.0’을 기초로 ▶ 기초 생활보장 강화, ▶ 민생경제 지원, ▶ 안전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으로 하고, ▶ 미래산업 육성, ▶ 건강문화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예산을 더해 전년도 대비 3조 3,915억원(7%)이 증액된 51조 5,060억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함.
- 이를 위해 ▶ 시민의 삶을 지키는 동행서울, ▶ 안심일상을 위한 안전서울, ▶ 건강하고 활력있는 매력서울을 중점투자분야로 설정하되,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채무 규모를 늘리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함.

< 2026년도 예산안 중점투자분야 및 주요사업 >

구분	안정된 삶의 기반을 위한 동행서울	안심일상을 위한 안전서울	건강하고 활력있는 매력서울
분야별 예산규모	16조 6,686억원	4조 3,663억원	2조 617억원
주요사업	1.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 7조 575억원 2.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 : 7,452억원 3.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 1조 7,016억원 4.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7조 1,642억원	1. 안전인프라 확충 : 2조 2,740억원 2. 대중교통 편의성 강화 : 2조 923억원	1. 365일 건강한 생활 : 8,919억원 2. 미래 성장동력 강화 : 2,675억원 3. 매일이 즐겁고 새로운 편시티 조성 : 9,023억원

2. 세입

가. 총괄

-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155억 3천 3백만원 (29.6%) 증가한 5,062억 4천 9백만원임.

<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세입예산안 개요 >

구 분	2025 최종예산	2026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90,716	506,249	115,533	29.6
일반회계	386,994	506,249	119,255	30.8
세외수입	328,683	424,315	95,632	29.1
경상적 세외수입	203,210	29,378	△173,832	△85.5
임시적 세외수입	124,944	394,590	269,646	215.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	46	31	206.7
지난연도 수입	513	300	△213	41.5
보조금	58,157	57,849	△308	△0.5
지방채	-	24,000	24,000	신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4	86	△68	44.2
도시개발특별회계	3,722	-	△3,722	△100.0
보조금	3,722	-	△3,722	△100.0

-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56억 3천 2백만원 증가한 4,243억 1천 5백만원이며, 보조금은 3억 8백만원 감소한 578억 4천 9백만원, 지방채는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서울창업허브 M+) 건축비용 관련(2021.12.7.) 지방채 상환비용 24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천 8백만원 감소한 8천 6백만원임.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38억 3천 2백만원이 감소한 293억 7천 8백만원이며, 이는 2025년까지 경제실에서 매각을 추진했던 DMC랜드마크 용지(F1 · F2)의 재산관리관이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이관('25.9.)됨에 따라

해당 매각사업수입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보조금은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국고 보조금 전액(250억원)이 2025년에 교부 완료됨에 따라 2026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음.

나. 매각 여부 불분명한 DMC 용지 매각수입 산입

- 경제실은 2026년 임시적 세외수입에 DMC 교육첨단 용지(D2-1) 매각수입(2,581억 5천 2백만원)과 DMC 홍보관 용지(D4) 매각수입(1,098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교육첨단 용지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된 이후, 수색역 개발 등 향후 행정수요를 고려해 장기간 유보지로 존치되었다가 2025년에 ‘교육첨단 및 홍보관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2025년 12월 매각공고가 예정되어 있음.
- 홍보관 용지는 2023년 말 DMC 홍보관 운영 종료 후 2024년부터 매각수입을 반복적으로 세입에 반영했으나, 그동안 매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필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2025년 11월 현재까지 매각공고조차 게시하지 못해 2025년 연내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임.
- 홍보관 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감정평가 등 매각공고 게시를 위한 사전절차는 2025년 11월 중 완료될 예정으로 교육첨단 용지와 함께 2025년 12월 매각공고가 계획됨에 따라 2026년에도 매각수입으로 편성됨.

< DMC홍보관 용지 세입예산 편성 및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세입예산 편성액	101,643	101,643	109,851
결 산 액	-	-	
과부족 발생사유	홍보관 용지 미공급	홍보관 용지 미공급	

- 경제실은 두 용지 모두 2026년 상반기 중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PF 부실 위험 등 현재의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매각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임.
- 이와 같이 매각 여부가 불분명한 시유재산의 매각 수입을 세입에 반영하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로서 재정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추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수지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회계문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에 이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매각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성사 가능성이 가시화된 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축소

-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사업의 국비 총액 교부 완료와 투자유치 기반조성(서비스형 외투지역 임대료 지원)사업의 종료 등에 따라 2026년도 국고보조금 총액은 전년도 618억 7천 9백만원 대비 40억 3천만원이 감소한 578억 4천 9백만원임.

< 2026년도 주요 국비 감액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최종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	감액사유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	(X672) 960	(X611) 873	(X△61) △87	2025년 국비보조금 교부액에 맞춰 2026년 예산 조정
투자유치기반조성 (서비스형 외투지역 임대료 지원)	(X76) 252	-	(X△76) △252	기 지원중인 외국인투자기업 1개사 '25년 지원 종료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X3,722) 10,483	14,492	(X△3,722) 4,008	국비 총액 250억원 교부 완료(~'25년)

- 국고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이해가 있거나 국가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에 위임 처리케 하고 국가가 그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사업비를 조달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다만 서울시의 재정 여건상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의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특히 고용유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과 미래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세출

가. 주요 특징

- 경제실의 2026년도 예산안은 7,296억 6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7,082억 5천 6백만원) 대비 3.0%(214억 7백만원) 증액되었으며, 본예산(6,762억 1천 8백만원)과 비교하면 7.9%(534억 4천 5백만원) 증액됨.
- 그리고 경제실의 예산안이 서울시 전체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로, 전년도 최종예산과 동일한 수준임.
- 일반회계는 1.9%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0.1%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0.3%로 서울 창조산업 허브 조성 사업의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0.2% 증가함.

< 최근 5년 간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경제실 예산 비율 추이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안)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서울시	일반회계	313,425	380,505	334,661	362,322	330,492	342,464	344,189	376,975	368,943
	특별회계	128,766	142,567	137,244	141,438	126,913	131,680	136,955	143,501	146,117
	합계	442,190	523,072	471,905	503,760	457,405	474,144	481,145	520,477	515,060
경제실	일반회계	5,483	5,604	6,043	6,627	5,902	5,885	6,561	6,875	6,865
	특별회계	1,601	1,043	806	801	488	519	201	207	432
	합계	7,083	6,647	6,849	7,428	6,390	6,404	6,762	7,083	7,297
비율 (%)	일반회계	1.7	1.5	1.8	1.8	1.8	1.7	1.9	1.8	1.9
	특별회계	1.2	0.7	0.6	0.6	0.4	0.4	0.1	0.1	0.3
	합계	1.6	1.3	1.5	1.5	1.4	1.4	1.4	1.4	1.4

나.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개선 필요

- 서울시는 시정의 주요 정책사업과 성과관리를 직접 연계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을 통해 정책효과와 재정성과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해당부서의 정책목표를 대표하거나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그러나 경제실의 2026년 성과지표는 대부분 정량지표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창업생태계 구축, 산업 활성화, 전략산업 육성 등 정량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정책사업의 경우 양적·질적 성과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성과를 책정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임.
- 예를 들어 ‘좋은 일자리로 시민 삶을 지키는 서울 조성’의 경우, ▶ 청년 취업사관학교 교육생 수와 ▶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교육수료율로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성과지표를, ▶ 동행일자리 참여자 수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관련 성과지표를 설정함.
- 그러나 교육생 수나 교육 수료율은 사업 수행의 규모만을 나타낼 뿐 실제로 사업이 청년층 고용안정에 기여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업 성과의 달성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생의 취업률 및 취업 유지율, 직무캠프 수료자의 인턴 매칭률 등의 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동행일자리 사업 역시 단순 참여자 수가 아닌 참여자 만족도 등이 성과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 뷰티패션 활성화 및 제조산업 활성화’는 ▶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인재 양성 수, ▶K-패션 브랜드 육성 프로그램 참여 기업 수가 성과지표이나 수료생 수와 참여 기업 수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분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수료생의 업계 취업률, 참여기업의 매출 증가 등 실제 산업활성화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함.

< 2026년도 경제실 성과지표 현황 >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2026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백만원)
			정량/정성	성격	
서울경제의 성장 동력과 체질 강화	미래산업 분야 R&D 지원 건수	71	정량	산출	119,734
	테스트베드 실증지원 수	40	정량	산출	
좋은 일자리로 시민 삶을 지키는 서울 조성	청년취업시민학교 교육생 수	4,000	정량	산출	253,950
	청년인턴 직무캠프 교육 수료율	93	정량	산출	
	서울 동행일자리 참여자 수	13,657	정량	산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서울창업허브 및 가점별 특화 창업센터 창업기업 지원 수	1,450	정량	결과	33,174
	창업지원센터 오픈이노베이션 참여 대·중견기업 수	120	정량	결과	
캠퍼스타운 사업의 홍보 성과평가, 후속지원 (기업성장센터 운영) 등을 통한 인정적인 대학창업 생태계 구축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 육성 수	15	정량	산출	471
서울시-대학-지역이 연계한 R&D, AI 인재양성, 이공계 인재양성 등 서울 대학 혁신성장 추진	첨단창조산업 등 서울 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 수(연간)	3,400	정량	산출	81,966
	캠퍼스타운 창업팀 육성 수(연간)	650	정량	산출	
금융경쟁력 강화를 통한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 도약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발굴	340	정량	결과	28,236
	서울핀테크아카데미 수료자 수	700	정량	결과	
창조산업 육성 및 활성화	XR·게임 지원기업 수	92	정량	산출	51,990
	창조산업 인력양성 수	387	정량	산출	
서울 뷰티패션 활성화 및 제조산업 활성화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인재 양성 수	300	정량	산출	28,417
	K-패션 브랜드 육성 프로그램 참여 기업 수	400	정량	산출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2026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백만원)
			정량/정성	성격	
서울 미래 혁신성장 동력인 바이오의료 및 AI산업 육성	총 2026년 목표치 325 총 2026년 목표치 265 총 2026년 목표치 87 총 2026년 목표치 100	325 265 87 100	정량 정량 정량 정량	산출 산출 산출 산출	50,274 8,130
	G밸리 유망스타트업 지원기업 수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컨설팅 제공 건수				
신성장 산업 융복합 R&D 혁신거점 구축	과학관 방문객 및 이용자 수 (계수기 인원, 온라인 제외)	205,755	정량	결과	6,857
	이용자 거주지 균등성	0.34	정량	결과	

- 한편 성과목표치는 단순히 달성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설정하되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의 변화를 사전에 분석하고, 사업방식의 혁신 등 적극적 개선 노력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거 실적치 이하로 설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그러나 예를 들어 미래산업 분야 R&D 지원 건수의 경우, 2024년 69건(목표62건), 2025년 81건(목표 64건)으로 해당 연도의 목표치를 모두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의 목표치를 71건으로 낮게 설정하고 있어 성과관리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있으며, 청년인턴 직무캠프 교육수료율, 서울 동행일자리 참여자 수 등 적지 않은 사업이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실은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6년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현황 >

구 분	2024년 목표 / 실적	2025년 목표 / 실적	2026년 목표
미래산업 분야 R&D 지원 건수(건)	62 / 69	64 / 81 (9월말 기준)	71

구 분	2024년 목표 / 실적	2025년 목표 / 실적	2026년 목표
터스트베드 실증지원 수(개)	30 / 30	40 / 38 (9월말 기준)	40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수(명)	3,000 / 3,000	3,400 / 1,786 (9월말 기준)	4,000
청년인턴 직무캠프 교육 수료율(%)	89 / 91.4	90 / 97.4 (9월말 기준)	93
서울 동행 일자리 참여자 수(명)	11,000 / 13,836	11,500 / 14,067 (9월말 기준)	13,657
서울창업허브 및 거점별 특화 창업센터 창업기업 지원 수(개)	1,300 / 1,416	1,350 / 1,250 (9월말 기준)	1,450
창업자원센터 오픈이노베이 션 참여 대중견기업 수(개)	100 / 106	110 / 90 (9월말 기준)	120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 업 육성 수(개)	–	15 / 20 (9월말 기준)	15
첨단·창조산업 등 서울 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수(연간)(명)	–	3,400 / 1,297 (9월말 기준)	3,400
캠퍼스타운 창업팀 육성 수(연간)(팀)	–	1,000 / 1,230 (9월말 기준)	650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발굴(개)	286 / 287	300 / 321 (9월말 기준)	340
서울핀테크아카데미 수 료자 수(명)	530 / 534	620 / 598 (9월말 기준)	700
XR·게임 지원기업 수(개)	–	55 / 65 (9월말 기준)	92
창조산업 인력양성 수(명)	–	387 / 327 (9월말 기준)	387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인재 양성 수(명)	250 / 285	300 / 157 (9월말 기준)	300
K-패션 브랜드 육성 프 로그램 참여 기업 수(개)	–	400 / 280 (9월말 기준)	400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시 설 우수창업기업 육성 수(개(누계))	265 / 280	305 / 294 (9월말 기준)	325
서울 AI 허브를 통한 우수 창업기업 육성 수(개(누계))	202 / 231	240 / 252 (9월말 기준)	265

구 분	2024년 목표 / 실적	2025년 목표 / 실적	2026년 목표
G밸리 유망스타트업 지원 기업 수(개)	82 / 82	75 / 82 (9월말 기준)	87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컨설팅 제공 건수(개)	80 / 73	90 / 67 (9월말 기준)	100
과학관 방문객 및 이용자 수(계수기 인원, 온라인 제외)(명)	68,202 / 169,619	139,267 / 205,329 (9월말 기준)	205,755
이용자 거주지 균등성	- / 27.3	25 / 80.7 (9월말 기준)	0.34

다. 부적합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서울시는 ▶평등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성평등한 권리 증진, ▶사회안전 보장이란 성평등 목표에 따라 실질적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을 목표로 2026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함.
- 경제실의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6개 사업 2,519억 8천 3백만원 규모로, 경제실은 공평한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여 성별 격차를 완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성비의 불균형, 적절하지 않은 사업내용 및 성과지표 선정 등 일부 부적합한 사업이 확인됨.
- 먼저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은 실업자, 노숙자 또는 정기 근로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성별과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되며,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 특정 성별에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리고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은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들에게 전문적인 일 경험 제공과 직무교육 및 취창업 지원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연계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성인지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음.
- 그러나 매력일자리 사업의 2025년 여성 수혜자의 비율은 71.5%로 남성(28.5%)의 두 배 이상이며, 성과지표로 설정된 매력일자리 여성 참여자의 취업자 비율 역시 7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예산수혜를 받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미 여성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사업을 여성 중심 성인지대상 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남성의 수혜 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수혜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3,571	3,728	3,398
여성	2,381(66.7%)	2,610(70%)	2,430(71.5%)
남성	1,190(33.3%)	1,118(30%)	968(28.5%)

<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성과목표 및 실적 현황 >

성과목표(성과지표)	2024년 실적	2025년 추정치	2026년 목표치
여성 취업률 제고 (매력일자리 여성 참여자 중 취업자 비율)	70%	71%	72%

-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서울시 관내 기업의 인턴십 경험과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 청년의 구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돌봄·가사 부담 등으로 여성들의 노동 시장 진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성인지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음.
- 그러나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의 2025년 여성 수혜자의 비율은 72.9%로 남성(27.1%)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고,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여성 참여자의 취업률도 6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참여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임.

<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 수혜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3,906	4,370	4,317
여성	2,719(69.6%)	3,237(74.1%)	3,148(72.9%)
남성	1,187(30.4%)	1,132(25.9%)	1,169(27.1%)

<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 성과목표 및 실적 현황 >

성과목표(성과지표)	2024년 실적	2025년 추정치	2026년 목표치
여성 청년의 경제활동 활성화 (직무캠프 여성 참여자 중 취업자 비율)	58%	60%	62%

- 성인지예산은 특정 성별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성평등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서울시는 향후 대상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보다 멀리 검토하여 실제 성평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인지예산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라. 주요 사업 검토

1)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별설명서 70쪽>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 50%를 지원하여 외상거래 실패에 따른 부도와 연쇄도산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최종예산 대비 9억 9천 6백만원이 감소한 15억원이 편성됨.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5예산	2026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2,496	1,500	△996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500

- 동 사업은 매출액 5백억원 미만의 서울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5백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했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제도임.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개요 >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예산 : 2,496백만원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500억 미만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50% 지원(기업별 5백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신용보증기금 위탁(지자체 협약보험)
- 사업수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동 사업은 2025년도 사업비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2025년 제1차 추경

예산 당시 10억원을 증액하여 9월 기준 중소기업 1,063개사 대상으로 보험료 21억 6천 6백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전액 소진이 예상됨.

- 그러나 서울시는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동 사업을 신설한 이후 매년 추경예산을 통해 동일한 규모(10억원)의 예산 증액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 되었음에도 2026년도 예산을 2025년도 당초 본예산(14억 9천 6백만원)과 유사한 규모(15억원)로 편성하였음.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예산(안) 산출근거 >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input type="radio"/>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1,496,400,000원 = 1,496,400천원	<input type="radio"/>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1,500,000,000원 = 1,500,000천원
	증감사유	
		<input type="radio"/> 전년도 본예산 수준 편성

- 이러한 예산 편성은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추경을 전제로 하여 본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긴급성과 예측 불가능성 등 추경 예산 편성 요건에 위배 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⁴⁾ 원칙에 반하는 행태이므로 본예산에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추경 편성 현황 >

회계연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2025	2,496	1,496	1,000
2024	2,500	1,500	1,000
2023	1,000	-	1,000

4)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편성

2)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사업별설명서 100쪽>

(1) 서울경제진흥원 사업 개요

- 서울시는 서울경제진흥원의 2026년도 고유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기 위해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34억 8천 3백만원($\triangle 5.8\%$)이 감액된 564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함.

<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5년 예산	2026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59,951	56,468	$\triangle 3,483$	■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 56,468

- 동 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서울의 산업 육성과 창업 촉진, 기업 성장 등의 지원에 중점을 둔 ‘고유사업’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그리고 위탁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위탁사업비를 받아 수행하고, 고유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편성하고 있으며, 출연금의 규모에 따라 고유사업의 확대나 축소, 사업의 종료 등 편차가 발생함.

< 최근 5년간 서울시 출연금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당초	추경		당초	추경	당초	추경	당초	추경
출연금	50,844	54,544	54,310	56,476	61,146	66,840	67,040	58,321	59,951

- 2026년도 동 진흥원의 고유사업비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7억 4천 8백만원(△12.5%)이 감액된 402억 9천 7백만원임.

< 서울경제진흥원 고유사업 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A)	2025년 최종예산(B)	2025년 본예산	증감 (A-B)	증감률 (A-B)/B*100
고유사업	40,297	46,045	44,315	△5,748	△12.5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3,000	4,254	4,254	△1,254	△29.5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	2,079	2,079	△2,079	△100.0%
미래혁신산업지원	3,000	2,175	2,175	825	37.9%
기업매출 증대 지원	10,328	11,411	10,181	△1,083	△9.5%
글로벌커머스 사업 운영	4,945	5,335	5,065	△390	△7.3%
해외시장 진출 지원	3,690	3,691	3,091	△1	0.0%
하이서울기업 지원	1,693	2,155	2,025	△462	△21.4%
중소기업 입찰정보 알리미 지원	–	230	–	△230	△100.0%
기업인재양성 및 고용지원	–	100	–	△100	△100.0%
디지털 역량(AI) 교육운영 지원	–	100	–	△100	△100.0%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1,811	1,832	1,532	△21	△1.1%
서울 로봇쇼 개최	1,811	1,832	1,532	△21	△1.1%
산업거점 활성화	8,348	9,004	9,004	△656	△7.3%
DMC 활성화 지원	250	475	475	△225	△47.3%
DMC인프라 운영	7,527	7,532	7,532	△5	△0.1%
지자체 네트워크협력 (구. G밸리 활성화 지원)	571	997	997	△426	△42.7%
창조산업 육성	6,638	8,614	8,514	△1,976	△22.9%
상상타운 조성 및 운영	451	840	840	△389	△46.3%
콘텐츠기업 지원	2,687	4,174	4,174	△1,487	△35.6%
서울콘(SeoulCon)	3,500	3,600	3,500	△100	△2.8%
뷰티패션산업 육성	10,172	10,830	10,830	△658	△6.1%
패션산업 육성	794	1,350	1,350	△556	△41.2%
비더비 운영 및 기업지원	5,150	5,284	5,284	△135	△2.5%
DDP쇼룸 운영	3,882	3,932	3,932	△50	△1.3%
첨단기술전시 운영	346	264	264	82	31.1%

(2) 사업별 검토

① 주요 증액사업

- 2026년도 동 진흥원의 증액 사업은 ‘미래혁신산업지원’ 사업과 ‘첨단 기술 전시운영’ 등 2개 사업임.

< 2026년도 진흥원 주요 증액사업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최종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액내용
미래혁신 산업지원	3,000	2,175	825 (37.9%)	<ul style="list-style-type: none">Viva-Tech 서울관 참가 등 글로벌 테크 전문 전시를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서울관(CES, Viva-Tech) 우수 성과 기업 대상 후속 성장지원 확대
첨단기술 전시운영	346	264	82 (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둘레길 및 전시2관 원상복구비 편성

- 미래혁신산업지원은 CES, Viva Tech 등 첨단전시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외 정부기관 및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기술 협력과 전시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의 미래 혁신산업(AI, 바이오, 헬스케어 등) 분야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억 2천 5백만원(37.9%)이 증액된 30억원이 편성됨.
- 동 진흥원은 그동안 동 사업을 통해 미국에서 열리는 CES⁵⁾에 서울관을 조성하여 유망 스타트업의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서울의 창업생태계와 혁신 스타트업을 세계에 알리고 첨단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해 왔음.

5) Consumer Electronics Show: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가전·IT제품 전시회로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며, 전 세계의 기업, 바이어, 미디어, 투자자 등이 참가해 최신 전자기기와 기술 트렌드를 선보임.

- 그리고 2026년부터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규모 기술·스타트업 박람회이자 글로벌 테크 컨퍼런스인 ‘Viva Tech’에 서울관을 추가로 조성하여 AI·디지털헬스·모빌리티 등 플랫폼 기반의 B2B 첨단 기술 및 서비스 분야 유망 스타트업(20개사 내외)의 참가를 지원할 예정임.
- 동 사업은 첨단 기술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이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홍보·네트워크 구축·투자유치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진출 및 성장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이러한 서울관 운영은 단순 프로모션 또는 일회성 전시에 그쳐 참가 기업의 투자유치·글로벌 네트워킹·파트너십 확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제한적이라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이와 관련하여 동 진흥원은 그동안 동 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로 ‘서울관 참여기업 수’와 ‘협력예산 유치액’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6년부터는 협력예산 유치액 대신 ‘해외 협력 네트워크 발굴 수’를 특성화 지표로 추가할 계획이나, 해당 지표들만으로는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미래혁신산업지원 성과지표 >

2026년 성과지표		2025년(9월말) 목표/실적	2026년 목표
공통	사업참여기업(서울관 참여기업 수)	70/68	80
특성화	해외 협력 네트워크 발굴	-	5

- 또한 2026년부터 Viva Tech 참가 지원을 위한 예산이 새롭게 반영된 만큼 동 진흥원은 단순한 해외 전시 참가 지원을 넘어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성장지원 및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성과지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책임성을 보다 엄격히 확보해야 할 것임.

② 주요 감액 사업

- 한편 동 진흥원의 고유사업 중 7개 사업은 서울시와 유사·중복 사업의 정비, 사업구조 개편, 추진 여건 변화 등의 이유로 전액 또는 일부가 감액 조정되었음.

< 진흥원 주요 감액 사업 >

구분	2026년 예산안(안)	2025년 최종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주요 감액내용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0	2,079	△2,079 (△100.0%)	· 시 벤처펀드 등을 통해 투자지원하고 있어 전액 삭감
콘텐츠기업지원	2,687	4,174	△1,487 (△35.6%)	· SPP사업을 엔터테크사업으로 통합하여 예산 삭감
하이서울기업지원	1,693	2,155	△462 (△21.4%)	·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 감액
DMC 활성화 지원	250	475	△225 (△47.3%)	· 장기 공실 분할 공사 완료로 공사비 감액
패션산업 육성	794	1,350	△556 (△41.2%)	·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예산 감액
상상타운 조성 및 운영	451	840	△389 (△46.3%)	· 창조산업허브 시설 준공('27년) 미도래에 따른 IP 전시 팝업 지원 삭감
지자체 네트워크협력	571	997	△426 (△42.7%)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축소 감액

- 이 중 일부 고유사업들은 서울시 사업과의 유사·중복 등을 이유로 감액 되거나 축소·종료가 추진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사업별로 축적된 전문성, 추진체계의 연속성, 외부 협력 체계 등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조정된 사례들이 확인됨.

(가)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은 Series A 이전 단계의 창업초기기업이 자금조달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간과 함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초기 투자 및 후속투자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7천 9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음.
- 동 사업은 Series A 이전 단계의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벤처캐피탈(VC) 투자가 주로 Series A 이상에 집중되는 시장 구조상 초기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투자 공백 영역’을 메우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민간 VC가 기피하는 위험구간을 공공이 보완해 초기 생태계의 기반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창업 지원’과 ‘기업 육성 지원’이라는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2개사를 발굴·지원한 결과 해당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3.3배 증가(11억원→36억원), 기업가치 2.3배 증가(96억원→218억원), 후속투자유치율 88%(후속투자유치금액 총 6,216억원), 일자리 창출 819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시 벤처펀드 등을 통해 지원 중”이라는 이유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는바 기존의 서울시 벤처펀드가 담당하지 못하는 창업 초기 생태계 공백 영역에 대한 동 사업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투자 회수와 재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투자지원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은 서울시 초기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와 직결될 우려가 있는바 동 사업의 예산 조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콘텐츠기업지원

- 콘텐츠기업지원은 웹툰, 웹소설 등과 같은 K-콘텐츠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창작자 및 기업과 협력하여 확장 가능한 유망 IP(지적재산)를 발굴하고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8천 7백만원 (35.6%)이 감액된 26억 8천 7백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크게 콘텐츠 제작, 콘텐츠 마케팅, 콘텐츠 투자, 기술지원 등 4가지로 나뉘며, 다양한 콘텐츠의 발굴·제작부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과 연계한 투자지원 및 육성, SPP국제콘텐츠마켓 등을 통한 글로벌 진출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임.
- 그러나 2001년부터 실시되어 서울의 대표적 B2B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온 ‘SPP6)국제콘텐츠마켓(이하 “SPP”)’은 2026년부터 경제실의 ‘엔터테크 서울 개최’ 사업과 통합되면서 SPP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기존의 사업은 글로벌 확장형 프로그램인 ‘Global SPP’ 만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될 계획임.
- SPP는 매년 30여 개국, 1,500여 개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참여하고 약 2,000건 이상의 비즈니스 매칭이 성사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표적 B2B 콘텐츠 마켓으로, 웹툰·애니메이션·캐릭터 등 콘텐츠 전 장르를 아우르며 25년간 축적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음.
- 반면에 엔터테크 행사는 ‘엔터테인먼트 + 테크’ 기반의 신개념 B2C

중심의 행사로 아직 개념 정립 단계에 있으며, 산업 전반보다는 특정 기술과 트렌드 중심의 성격이 강한바, SPP가 가진 창작-제작-투자-유통 전 과정을 포괄하는 B2B 생태계 지원 기능과는 목적과 대상,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두 행사를 단순 통합하는 경우, SPP가 25년간 축적해온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다양한 장르를 포괄해온 B2B 기반의 전문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기존 SPP 지원 기업군과 엔터테크 행사의 대상 및 목적이 일치하지 않아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행사 브랜드와 정체성에도 혼선이 생겨 전문성과 연속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특히 SPP와 Global SPP는 각각 국내 중심과 글로벌 확장 중심의 플랫폼으로 상호 보완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 추진 기관을 경제실과 진흥원으로 분리하거나 성격이 다른 행사와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전략적 연계성, 네트워크 관리, 지원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의 콘텐츠 산업 생태계 강화 및 기업 성장이라는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을 고려할 때, SPP의 추진체계를 현행 통합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미래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신규)

<사업별설명서 106쪽>

- 미래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은 미래 서울의 성장동력이 될 우주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 소재 기업의 기술개발 ·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원이 신규 편성됨.

< 미래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2025예산	2026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800	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150 ■ 민간경상사업보조 650

- 전 세계 우주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출범 ('25.5.)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우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서울시 역시 이러한 세계적 성장세와 국가정책 흐름에 맞춰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함.
- 이에 서울시는 2025년 8월 「서울시 우주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우주산업을 서울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 인프라 조성, ▶우주기업 성장 지원,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됨.

< 서울시 우주산업 육성계획('25.8.) >

- 비전 : 뉴스페이스 시대, 글로벌 우주산업 중심도시 서울
- 2040 목표 :
 - 서울 우주기업 '25년 150개사 → '30년 250개 → '40년 500개 육성
 - 위성 영상데이터 활용 신규사업 모델 '30년 150개 → '40년 500개 개발
 - 우주 핵심인재 '30년 1,000명 → '40년 3,500명 양성
- 3대 분야 10대 추진과제

분야	우주산업 인프라 조성	우주기업 성장 지원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 과제	①스페이스&테크 조성 ②우주융복합산업지원센터 개소 ③스페이스테크 밸리 조성	①우주산업 R&D 지원 ②첨단부품 검증 및 제품 개발 지원 ③위성 영상 활용 사업모델 개발 지원 ④우주산업 선도기업 육성	①우주산업 네트워크 및 기반 마련 ②우주 인재 단계별 육성 ③서울형 위성체 개발

- 성과지표

구분	'26	'27	'28	'29	'30	'40
우주기업육성 수(명, 누적)	150	160	180	210	250	500
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개, 누적)	30	60	90	120	150	500
인재 양성 수(명, 누적)	180	360	560	760	1,000	3,500

- 우주산업은 정부의 전략산업 정책과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평가되며, 서울시가 기업지원·인재양성·네트워크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미래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개요 >

◦ 사업목적 : 미래서울의 성장동력이 될 미래산업 및 서울시 우주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시 우주산업 육성계획(2025.8.20.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7호)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6.1.~2026.12.(연례반복)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우주기업 및 시민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 추진방법 : 직접수행 또는 외부용역 - 사업의 주요내용 : 서울시 미래산업 및 우주산업 기반조성 및 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 등 산업활성화 산학연 네트워크 조성 및 세미나 등 • 우주부품 등 첨단제품 제작·검증개발 지원 • 위성영상 등 활용 사업모델 개발 지원 • 산업현장 수요기반 우주인재 등 육성

- 다만 서울시의 우주산업 정책은 초기 단계로 정부 우주산업 정책과의 역할 분담, 타 지방자치단체 사업과의 차별성, 서울 내 우주기업의 산업적 분포 및 규모 등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정책 설계가 요구됨.
- 특히 우주 발사체 발사장을 보유한 전라남도와 우주환경시험시설이 있는 대전광역시 등 타 지자체가 이미 중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만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대전-경남-전남)와 연계·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별설명서 115쪽>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은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부합하는 시책 사업 및 생산성 있는 일자리 발굴을 통해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한 962억 6천 9백만원이 편성됨.

< 서울 동행일자리 >

(단위: 백만원)

2025예산	2026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94,291	96,269	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273사무관리비 1,100자치단체경상보조금 76,616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281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의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 (2.9%)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소폭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도 2025년도 집행액과 전문기관의 직무교육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됨.
-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취업이 곤란한 저소득층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형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음.
- 이후 2021년에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로 사업명이 변경되었고, 2023년 2월에는 시정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부합하도록 사업명이 ‘서울 동행일자리’로 재차 변경되었음.

< 서울 동행일자리 개요 >

- 사업형태 : 시·투자출연기관 사업(시비 100%), 자치구 사업(시·구 7:3 매칭)
- 지원목표 : 13,657명(2025년 지원목표 11,500명 대비 2,157명 증가)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서울시민
- 지원요건 :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및 자산 4.99억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1일 6시간, 주5일 원직(10,320원/H)
- 사업유형 : 약자가 약자를 돋는 ‘자조’ 기반 사업

경제적 약자	신체적 약자	사회안전약자	디지털 약자	기후환경약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어린이, 장애인 등	여성, 취약 주거 주민 등	노년층 등 정보 기술 습득 약자	야외활동 및 이동노동자 등

- 동 사업은 매년 사업 참여자의 과다집계와 과도한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사업 목표를 참여자 수로 책정하고 있으나, 사업 참여 인원의 중도 이탈에 따른 신규 참여자, 단시간 참여자 등이 중복 집계되면서 목표 인원 대비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목표 달성을 넘어선 듯한 착시효과를 보이는 문제가 있어 왔음.

< 서울 동행일자리 참여 인원 및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참여 인원			예산 현황				
	목표인원	선발인원	목표달성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1년	11,374	14,093	124%	72,590	70,669	–	1,921	97.3%
2022년	8,869	12,248	138%	67,229	62,352	193	4,683	92.7%
2023년	13,000	14,534	111%	106,135	97,432	304	8,400	91.8%
2024년	11,500	13,836	120%	88,209	85,919	–	2,290	97.4%
2025년	11,500	14,578(9월)	미정	94,291	미정	미정	미정	미정

- 특히 동 사업은 참여자의 중도 이탈로 인한 결원 보충의 지연, 고령층의 경우 체력의 한계 등으로 1일 3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참여자가 발생하면서 목표 인원 대비 더 많은 참여 인원이 발생하는 구조임.

- 또한 동 사업은 예산의 규모가 방대하여 집행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별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합산하면 총합 20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

< 서울 동행일자리 참여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22	67,229	0	0	67,229	62,352	193	4,683
2023	106,200	193	△258	106,135	97,432	304	8,400
2024	87,905	304	0	88,209	85,919	0	2,290

- 이에 서울시는 2026년부터 6시간 근무자와 단시간 근무자를 구분하여 과다집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나 동행일자리의 사업 효율화는 단순히 집계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집행잔액의 최소화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구조임.
- 따라서 동 사업의 예산 집행은 사업 참여자의 근로 시간에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을 기준으로 1일 6시간 근무시 1명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산정할 경우 근무시간과 예산 집행, 참가자 수를 일치시킬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참여자 집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 사업에 대한 인지 경로가 주로 지인의 소개(1위), 구청 공무원의 안내(3위) 등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⁷⁾,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 등 참여 확대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5) 서울투자진흥재단 운영

<사업별설명서 322쪽>

-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고유사업 추진에 필요한

7) 2024년 동행일자리 사업 결과보고서

경비 등을 출연하기 위해 전년 대비 70억 5천 6백만원이 증액(393.1%)된 88억 5천 1백만원이 편성됨.

< 서울투자진흥재단 운영 예산안 >

(단위: 백만원)

2025예산	2026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795	8,851	7,056	■ 출연금 8,851

- 동 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0월 출범하였으나, 초기 업무 환경 조성과 직원 채용 등의 준비절차가 진행되면서 당해연도에는 실질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웠고, 투자유치 업무의 특성상 자체 수입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출연금이 편성됨.
- 2025년 9월 12일 서울투자진흥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던 인베스트서울의 기능이 동 재단으로 이관되고, 그 잔여 예산(17억 9천 5백만원)을 2개월(11~12월)간의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편성했으며, 재단으로서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은 이번이 최초임.
- 동 재단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 고유사업과 정부·시·자치구 등에서 위탁하는 위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재단 출범 초기인 2026년에는 고유사업만 수행할 계획임.
- 이에 따라 동 재단은 전액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출연금은 인건비 26억 8백만원, 운영비 24억 1천 5백만원, 사업비 37억 7천 7백만원, 예비비

5천만원으로 구성되었음.

- 다만 사무공간 조성 공사비와 재단 전산개발비 등 재단 신설에 따른 초기 비용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영비의 비중(27.3%)이 과도한 것으로 사료됨.⁸⁾

< 서울투자진흥재단 출연금 편성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비율)
인건비	2,608(29.5)
운영비	2,415(27.3)
사업비	3,777(42.7)
예비비	50(0.6)

- 한편 재단의 2026년 고유사업은 투자환경 글로벌 인지도 강화, 자본유치 촉진, 글로벌기업 유치, 부지개발 마케팅 등 4개 분야 1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됨.

< 서울투자진흥재단의 고유사업 예산 편성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여부
1. 재단 전략수립 및 서울 투자환경의 글로벌 인지도 강화	236	
투자유치 전담기관 인지도 강화	8	신규
서울 투자유치단 확대	12	
서울 투자환경 브랜딩	174	
서울 투자동향 정보 제공	42	신규
2. 기업 특화지원 및 투자 네트워크 확대 등 자본유치 촉진	1,310	
Core기업 투자정보 제공 및 IR 확대	1,012	
Core20 해외 현지 실증 지원	122	신규

8) 2024년 기준 서울시 출연기관의 운영비(경상경비)는 평균 10.6% 수준이며, 세종문화회관이 22.1%로 가장 높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여부
기관투자자 중심 네트워크 확대	151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화 지원	25	신규
3.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한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	1,748	
기업/기관 연계 해외기업 발굴	76	
해외거점 파트너 연계 글로벌기업 발굴	395	
해외 전략지역 서울포워드 운영	577	
해외기업 투자실사단 운영	152	
FDI 올인원 패키지	523	
외투기업 밀착관리	25	신규
4. 부지개발 마케팅 강화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	483	
서울시 핵심 개발지 마케팅	279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	204	
합계	3,777	

- 동 재단은 서울시 경제·산업의 장점과 환경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지속성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함.
- 그러나 16개 세부 사업 중 투자유치 전담기관 인지도 강화, 서울 투자동향 정보 제공 등 5개 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은 사실상 기존 인베스트서울에서 수행하던 사업의 규모를 확대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재단의 신규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전체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2억 2천 2백만원)에 불과한 수준임.
- 신규 출범한 재단이 조직 안정화와 기존의 인베스트서울에서 수행하던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구성은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서 서울시의 특성과 전략적 필요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유사업을 마련한다는 출범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재단은 급변하는 글로벌 투자환경 속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을 전담·통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단만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서울시는 ‘세입세출예산서’와 ‘사업별설명서’에 재단 운영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중감내역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2025년도 예산은 재단의 예산이 아닌 인베스트서울 운영 사업 예산임.

< 서울투자진흥재단 운영 예산 총괄 >

구 분	2025년		202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5,298,332	(x-) 5,298,332	(x-) 8,851,000	(x-) 3,552,668	(x-) 67
사무관리비	(x-) 110,111	(x-) 110,111	(x-) 0	(x-) △110,111	(x-) △100
공공운영비	(x-) 278	(x-) 278	(x-) 0	(x-) △278	(x-) △100
국외업무여비	(x-) 50,000	(x-) 50,000	(x-) 0	(x-) △50,000	(x-) △100
출연금	(x-) 0	(x-) 0	(x-) 8,851,000	(x-) 8,851,000	(x-) 10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x-) 5,137,943	(x-) 5,137,943	(x-) 0	(x-) △5,137,943	(x-) △100

- 동 재단과 기존의 인베스트서울은 업무의 연속성은 있으나 법적 지위와 성격이 명백히 다른 만큼 예산서 및 사업별설명서 작성 시 이를 명확히 구분해 표기해야 함.
- 그러나 서울시는 동 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을 17억 9천 5백만원이 아닌 인베스트서울의 2025년도 예산 52억 9천 8백만원을 기준으로 재단의 예산 증가액을 35억 5천 3백만원(67%증가)으로 표기하였음.

- 이러한 행태는 예산 증감액 해석 과정에서 착시와 왜곡을 초래하여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예산서와 사업별설명서 작성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6) 엔터테크 서울 개최

<사업별설명서 346쪽>

- 엔터테크 서울 개최는 콘텐츠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고, 창조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 대비 433.3%(12억 3천 5백만원) 증액된 15억 2천만원이 편성됨.

< 엔터테크 서울 개최 예산안 >

(단위: 백만원)

2025예산	2026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285	1,520	1,235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20

- 2025년에 최초로 개최된 엔터테크 서울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엔터테크 산업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GES⁹⁾, XR 페스티벌 등의 기존 행사와 통합 개최되어 K-pop, 게임, XR 등 창조산업 관련 관계자와 시민이 직접 참여 · 체험하는 행사로 추진되었음.

< 엔터테크 서울 2025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025.9.19. ~ 9.21. / DDP
- 주최/수행사 : 서울특별시 / 퍼틸레인
- 주요구성 : 개막식, 콘포러스, 전시 · 체험 · 공연 등
- 예산: 285백만원 ※ GES(720백만원), XR(243백만원) 행사 연계 추진

9) Game Esports Seoul

구 분	9. 19.(금)	9. 20.(토)	9. 21.(일)
아트홀 1	게임·XR 기업 전시·체험존		
아트홀 2	개막식 포럼(엔터테크, XR)	이터널리턴 프로대회 인플루언서 이벤트 경기	서울컵(청소년·장애인) 인플루언서 이벤트 경기
컨퍼런스홀	게임 공모전	팬사인회 뷰잉파티	직무 세미나 일자리 매칭
어울림광장	엔터테크 체험 및 전시, 버스킹 공연		

◦ 개최결과

- (방문객수) 개막식 335명, 포럼 147명, 체험·전시 10,448명 등 총 10,930명
 - (참여기업) 전시·체험 8개사, 홍보 등 협력기업 15개사 등 총 23개사
- ※ 엔터테크, GES, XR 페스티벌 통합 개최 결과: 관람객 35,112명, 기업참여 124개사

- 그러나 기존 행사와 일정 · 장소를 연계함으로써 규모 확대와 홍보 효과는 있었으나, 행사 간 분절로 인해 통합 브랜드 및 운영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해 온 SPP국제콘텐츠마켓(이하 “SPP”)과 XR페스티벌 등 기존에 분산 운영되었던 창조산업 관련 행사들을 ‘엔터테크 서울’ 행사로 통합하여 미국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SXSW)’¹⁰⁾와 같은 글로벌 대표 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됨.
- 엔터테크 서울은 2026년부터 서울경제진흥원을 대행기관으로 하여 개막 공연, 콘퍼런스, 전시 · 체험 마켓, 기업활동(IR) ·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 B2B · B2C 복합형 행사로 추진될 예정임.

< 엔터테크 서울 2026 개최 개요 >

- 사업기간 : 2026.9.9. ~ 9.13.
 - 사업대상 : 창조산업 관련 기업 및 종사자, 기술기업, 시민 등
 - 추진방법 : 서울경제진흥원 대행
 - 주요내용

10) 미국 텍사스에서 매년 3월 개최되는 세계적인 예술 축제

- (개막공연) 글로벌 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선언 및 축하공연
 - K-pop 스타와의 몰입형 공연,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공연
- (콘퍼런스) K-콘텐츠 글로벌 지식 교류 플랫폼 수행
 - 엔터테크 콘퍼런스, 토크 콘서트
- (전시체험마켓) 실감 몰입형 산업·문화 체험 공간
 - B2B·B2C전시, 브랜드 체험전, K-콘텐츠 팝업스토어
- (비즈니스)
 - IR, B2B 비즈니스 기업관, 창작·혁신 프로그램 운영

- 동 사업은 기술 기반 콘텐츠 소비 확대와 체험형 문화행사 수요 증가 등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여 K-콘텐츠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하나의 대형 플랫폼으로 구현함으로써 산업 저변확대와 시민·관광객 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엔터테크 서울은 2025년 최초 개최한 B2C 중심 행사로, 25년간 축적된 B2B 중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SPP와는 성격이 상이하여 두 행사의 통합 과정에서 전문성 약화 및 네트워크 단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SPP 지원 기업군과 엔터테크 대상 기업 간의 차이로 인해 운영 효율성 저하 및 행사 정체성의 혼란 가능성도 존재함.
- 또한 종전까지 서울경제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운영되던 SPP를 엔터테크와 통합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도 실제 수행은 다시 동 진흥원이 대행하는 것은 사업방식 변경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하겠음.
- 따라서 엔터테크 서울 개최는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고 시민참여·관광유입 확대 등 긍정적 잠재력을 지닌 사업임에도 기존 B2B 기반 SPP와의 정합성, 추진체계 변경의 타당성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되는바, 통합 및 운영 전략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7) 서울패션로드 운영

<사업별설명서 436쪽>

- 서울패션로드는 서울 도심의 명소를 배경으로 패션이벤트를 선보여 특별한 패션경험을 제공하고 ‘글로벌 패션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천만원(10.0%)이 감액된 9억 9천만원이 편성됨.

< 서울패션로드 운영 예산안 >

(단위: 백만원)

2025예산	2026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100	990	110	■ 행사운영비 990

-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패션위크를 개최해 왔으나 봄과 가을 각 1주일에 불과한 개최 기간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중심의 한정된 장소 등으로 인해 패션산업의 홍보와 저변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서울시는 매력적인 공간자원과 패션을 연계하고,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K-문화를 K-패션에 대한 관심과 구매로 발전시키며, 패션을 주제로 한 문화 및 관광 분야를 접목시켜 국내 패션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2026 서울패션로드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리고 2024년에는 석촌호수와 뚝섬한강공원, 2025년에는 정동길과 신당역 미사용 환승로 등에서 총 4차례 행사를 개최하였음.

< 2025 서울패션로드 개요 >

- 사업목적
 - 장소 특성과 부합하는 창의적인 런웨이 연출, 일상속 특별한 패션 경험 기회 제공
 - 매력적인 장소와 K-패션 브랜드와의 조합을 통한 ‘글로벌 패션도시’ 이미지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5. 3. ~ 11.
- 사업장소: 주요 패션거리 및 이색장소
- 추진방법: 전문업체 선정을 통한 기획 및 운영
- 주요내용: 도심 패션쇼(2회), 디지털 콘텐츠 제작(화보, 영상)

- 2025년 예산: 11억 원

- 2025년 행사개요

구분	서울패션로드 at 정동	서울패션로드 at 신당
개최일시	2025.5.2. 16:00, 19:00	2025.9.2. ~ 9.7.
장소	덕수궁길(대한문~원형로터리 분수)	신당역 6호선 미사용 환승 통로
예산	500백만원	500백만원
주요내용	모던한복 패션쇼, 오케스트라 연주, 꽃길 연출	AI 접목한 동대문 기반 신진디자이너 패션 전시

- 서울패션로드는 세계 패션계의 관심을 유도하고 서울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세계 유명 패션쇼가 경제적 파급효과와 도시브랜딩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참가 브랜드 수와 관람인원으로 설정하고 있어, 참여 브랜드 매출실적, 해외 관광객 유입, 주변 상권 매출 효과 등 패션쇼가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서울패션로드 개최가 경제적 성과나 도시 이미지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재정투입의 타당성을 입증하기에도 한계가 존재함.

< 2024~2025년 서울패션로드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연도	구 분	성과지표 ① (참가 브랜드 수)	성과지표 ② (현장 관람인원)	성과지표 산출 근거
2025년	목 표	8개 브랜드	4,950명	① 연 2회, 회당 4개 브랜드 ② '24년 실적(3,300명)의 150%

연도	구 분	성과지표 ① (참가 브랜드 수)	성과지표 ② (현장 관람인원)	성과지표 산출 근거
2024년	실적	10개 브랜드	5,994명	
	덕수궁길 ('25.5월)	4개 브랜드 참여	3,709명	
	신당역 유흥공간 ('25.9월)	6개 브랜드 참여	2,285명	
	목표 대비 달성도	125%	121%	
	목표	6개 브랜드	2,000명	① 연 2회, 회당 3개 브랜드 ② 1회차 1,100명 / 2회차 900명 목표
2024년	실적	6개 브랜드	3,400명	
	석촌호수 ('25.5월)	3개 브랜드 참여	2,500명	
	뚝섬 한강공원 ('25.8월)	3개 브랜드 참여	900명	
	목표 대비 달성도	100%	170%	

- 따라서 서울시는 단순한 행사성 패션쇼가 아닌 다양한 가치 창출이 가능한 종합적인 패션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성과지표 또한 패션쇼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성과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8) 서울시립과학관

<사업별설명서 565쪽>

①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 서울시립과학관은 강북권역에 과학문화시설 확충과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고자 설립된 과학기술 체험·전시 기관으로 2026년도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를 2025년도와 유사한 7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함.
- 동 과학관은 과학기술의 체험과 교육을 목적으로 보호자가 아이들과 함께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사진 도로와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자 2017년 과학관 개관에 맞춰 하계역과 과학관 사이를 운행하는 전기버스를 도입, 운영 중임.

< 시립과학관 전기버스 도입 및 운영현황 >

- 도입 현황 : 1대(75두3669, 좌석 26개) / 2017.10.10.
- 도입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
(공공기관 친화적 자동차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구매 비율 강화)
- 운행 인력 : 2명(공무원 1명, 공무직 1명)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 경력자
- 취득가액 : 4억 6천 9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운행시간 : 오전 9:35 ~ 오후 5:30(하루 9회 운행, 휴관일 미운행)
- 운행노선 : 서울시립과학관→하계역 3번 출구→서울시립과학관
- 정비예산 : 2022년: 5백5십만원, 2023년~2026년: (연간)6백만원
- 내구연한 : 9년(2017.10.10.~2026.10.9.)

- 그러나 현재 전기버스는 취득 8년 차에 들어가면서 주행거리가 당초 대비 1/4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잦은 고장과 AS지연 등으로 2022년부터 연간 10개월을 채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음.
- 그리고 과학관은 2025년 7월 전기버스 충전장치가 수리불가 판정을 받자 내년 초 이를 불용 처리하고 운전직 공무원 1명은 서울시 본청으로 전출, 공무직 운전직원은 관용차량 4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으로 운전 인력을 개편할 계획임.
- 한편 과학관은 이번 예산안 중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세부내역에 ‘자동차 유지관리비’를 1천 6백만원 편성하고 그중 전기버스 충전 및 유지비용이 정상 운영을 가정하여 편성되었는바, 해당 예산의 감액 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불용처리 지연으로 불필요한 자동차세와 차량 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 시립과학관 자동차유지관리비 세부 편성 현황 >

- 자동차세 250,000원*5대 = 1,250 천원
- 자동차 법정 종합검사비 100,000원*5대 = 500 천원
- 차량 유류대 및 전기차 충전요금 200,000원*12월 = 2,400 천원
- 관용차량 유지관리 450,000원*12월 = 5,400 천원
- 전기버스 유지관리 1,500,000원*4분기 = 6,000 천원

②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

- 쾌적하고 안정적인 전시실 운영을 통한 과학문화 확산 및 대중화 기반 구축을 위한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천만원이 감소한 3억 9천 5백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 예산 >

(단위 : 백만원)

2025예산	2026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515	395	△120	■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 395

- 시립과학관은 개관(2017.05.19.) 이후 점진적인 전시물 확충과 유지·보수를 통해 2025년 10월 기준 총 219종의 전시품을 유지 중이나 그중 165종(75.3%)의 전시품의 내구연한이 4.5년을 넘기고 있음.
- 또한 예산 부족으로 체험전시물의 취득 평균 단가도 국립박물관의 61.9% 수준에 불과해 최신 과학전시물 구현과 완성도 높은 체험전시물 비치가 어려운 상황임.
- 특히 2025년 체험전시물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어린이 체험전시물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전시를 노후화에 따른 이용객의 불안감 마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과학관은 2017년도에 제작 · 설치된 노후 전시물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여 전시물 28점을 불용 처리 하는 한편 일부 전시물에 대한 수리와 보완을 하면서 동시에 2026년부터 전시관 및 전시물의 전면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¹¹⁾을 실시함.

11) 서울시립과학관 전시공간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2025)

-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2025.9.)를 토대로 2026년부터 3년간 전시공간 및 전시물 개선을 위한 ‘서울시립과학관 중장기 재구조화 추진계획’을 제시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되지 못한 상황임.
- 이와 같이 노후화된 전시물에 대한 시민의 안전사고 우려와 효율적이지 못한 시설 구성으로 당초 강북권역의 과학문화시설 확충과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고자 설립된 시립과학관의 목적과 달리 운영상 효율 저하가 우려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2장 2026년도 경제실 소관 기금

I. 기금 개요

1.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총괄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서울시 일반회계 전출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기존 펀드 투자 회수금 등을 활용하여 서울 소재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통해 효율적인 기업 투자지원 구조를 조성하고자 운영중임.
 - 투자계정은 주목적 투자분야를 정하고 있는 주요 4개 펀드¹²⁾에 출자하고, 투자기간이 지난 후 회수한 수익금을 차기 재원으로 활용하여 서울 소재 미래먹거리 산업 분야에 재투자하는 독자적인 지원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 투자계정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천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09억 1천 2백만원(95.3%)이 감소함.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말 조성액(a)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e)=d+a
	수입(b)	지출(c)	증감 d=b-c	
11,452	56,063	66,976	△10,912	540

12) ①미래혁신성장펀드, ②서울비전2030펀드, ③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④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2. 2026년도 수입·지출 계획안

- 투자계정의 2026년도 수입·지출 규모는 675억 1천 6백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446억 2천 3백만원($\triangle 39.8\%$)이 감소함.

가. 수입계획안

- 수입은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15억 5천만원, ▶ 예치금 회수 114억 5천 2백만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3백만원, ▶ 펀드 투자 회수금 및 위탁사업비 반환금인 기타수입 130억 1천만원임.

< 2026년도 투자계정 수입계획 >

(단위 : 백만원, '25. 10. 31. 기준)

항 목	수입계획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주요내역
합 계	67,516	112,139	$\triangle 44,623$	-
전입금	41,550	44,110	$\triangle 2,560$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11,452	57,521	$\triangle 46,069$	-
예수금	-	-	-	-
이자수입	1,503	1,505	$\triangle 3$	공공예금 이자 등
기타수입	13,010	9,002	4,008	펀드 투자 회수금 등

※ 전입금 : 경제실 펀드 408억원 및 민생노동국 소상공인 펀드 7억원

나. 지출계획안

- 지출은 ▶ 펀드 조성 및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자성사업비 403억 2천 6백만원, ▶ 기금운용심의회 심사수당 등 기본경비 1천만원, ▶ 예치금 5억 4천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수금원리금상환 266억 4천만원 임¹³⁾.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원금 252억 2천만원, 이자 14억 2천만원)

< 2026년도 투자계정 지출계획 >

(단위 : 백만원)

지출계획				
항 목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주요내역
합 계	67,516	112,139	△44,623	-
비융자성사업비	40,326	85,123	△44,797	서울Vision2030펀드 등 조성 및 관리
기본경비	10	20	△10	-
예치금	540	11,452	△10,912	-
예수금원리금상환	26,640	15,543	11,09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 비융자성사업비는 혁신성장펀드 출자금(65억 4천 2백만원)과 서울비전2030 펀드 출자금(320억 8천 8백만원), 녹색기업창업펀드 5호(7억원), 서울 벤처펀드 운영비(2억 9천 6백만원),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7억원) 등임.

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개요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면서 펀드 운용자금과 투자 회수금의 재투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14’으로 각각 분리하였음.
- 투자계정의 운용 목적은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서울 소재 벤처기업 등에 대량의 정책 지원금을 투자금 형태로 원활하게 지원하고, 회수된 수익금을 이용하여 신규 벤처기업에 다시 지원하는 기업 지원 구조를 조성하는 것임.
- 현재 투자계정은 펀드 조성사업으로 ▶미래혁신성장펀드, ▶서울비전2030 펀드,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조성, ▶소상공인 펀드 등 총 4가지 펀드를 조성 및 운영중에 있고, 그중 미래혁신성장펀드와 서울비전2030 펀드를 관리·운영하는 ▶서울 벤처펀드 운영 사업 1개가 있음.

< 경제실 소관 투자계정 펀드 운용 현황 >

펀드명	조성기간	市 출자약정액	조성액
미래혁신성장 펀드	'19년~'22년	1,751억원	3조 6,857억원
서울비전2030 펀드	'23년~'26년	3,500억원(목표)	5조원(목표)

14) 2018년 10월에 신설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융자계정과의 기능 분리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융자계정으로부터 기금관리비(4억 7천 2백만원)와 2018년 펀드운용수입(24억 9백만원)을 이체받았고, 향후 발생하는 펀드의 회수액은 투자계정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하였음.

- 2025년도 투자계정은 이러한 펀드 조성과 사업에 일반회계 전입금 441억 1천만원 등 총 수입 1,121억원 중 9월까지 466억 8천만원을 지출(집행률 41.6%)하였고, 4분기 지출계획에 따라 출자금 납입(231억원)과 예수금 원금 · 이자 상환(144억원)등으로 연말까지 75%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현황 >

(기준: '25. 9. 30. 단위: 백만원, %)

수 입				지 출			
항 목	수입계획액	실제 수입액	증 감 (증감률)	항 목	지출계획액	실제 지출액	집행률
합 계	112,139	112,662	523(0.5)	합 계	112,139	46,682	41.6
전 입 금	44,110	44,110	0	출 자 금	84,808	45,330	53.4
기타사업수입 (투자회수금)	9,000	9,569	569(6.3)	예수금 상환	15,543	1,177	7.6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	1,454	△46(△31)	기본경비	20	6	29.1
위탁비변환 수입 등	8	8	0	벤큐펀드운영	315	170	54.1
예금회수	57,521	57,521	0	예 치 금	11,453	0	0

- 상기 펀드는 서울시의 출자약정액과 정부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금을 합쳐 대규모 자금이 조성되며, 공모로 선정된 전문 운용사는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기반으로 투자 대상기업의 발굴, 투자실행, 자금회수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 이와 같이 정부모태펀드를 활용한 펀드투자의 경우 통상 펀드의 조성기간과 회수기간을 각 4년씩, 총 8년간 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 여건에 따라 투자자금의 회수 시기를 조정하면서 실제 펀드 운용기간은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음.

<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경제실) 운용구조 >



- 경제실 소관 펀드 2개의 운용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미래혁신성장펀드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글로벌 탑5 창업도시 서울 추진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시작하여 지난 2022년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까지 잔여 출자금 납입을 이어갈 예정임.
- 서울시는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통해 투자가 필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 ▶ 4차산업혁명, ▶ 스마트시티, ▶ 문화콘텐츠, ▶ 창업지원, ▶ 재도전지원,
 - ▶ 바이오 등 6개 분야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음.
- 미래혁신성장펀드는 투자기간 동안 총 1,576개사에 3조 1,46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총 매출 4조 4,388억원 증가 및 고용 20,376명 창출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됨.

<미래혁신성장펀드>

총 조성: 3조 6,857억원

서울시 약정액: 1,751억원

서울시 납입액: 1,653억원

벤처기업 투자성과: 1,576개사 3조 1,460억원(25년 6월말 기준)

서울 소재 투자기업 698개사 1조 2,079억원 투자

벤처기업 투자효과: 매출 4조 4,388억원 증가, 고용 20,376명 창출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미래혁신성장펀드 이후 서울시 관내 미래 기술 유망 산업군(바이오, AI, 콘텐츠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서울비전 2030펀드’를 2023년부터 신규 조성 중임.
- 서울비전2030펀드의 결성목표액은 총 5조원이고, 이 중 서울시 출자액은 총 3,500억원이며, 출자재원은 서울시 일반회계 전출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기존 펀드 투자 회수금 등임.

< 서울비전2030펀드 연차별 조성 계획 >

(단위 : 억원, '25. 10. 31. 기준)

분야	비율	조성목표 (출자액)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100%	50,000 (3,500)	10,650 (700)	11,750 (810)	12,500 (890)	15,100 (1,100)
업종	인공지능대전환 (2025년 신설)	10%	5,000 (300)	-	-	2,500 (150)
	디지털대전환	12%	6,000 (400)	2,000 (100)	2,500 (150)	500 (50)
	바이오	15%	7,500 (400)	1,900 (100)	1,900 (100)	1,900 (100)
	첨단제조 (2024년 신설)	10%	5,000 (500)	-	1,500 (150)	1,500 (150)
	창조산업 (문화콘텐츠 확대)	20%	10,000 (600)	1,500 (100)	2,550 (150)	2,550 (150)
기업성장단계	첫걸음동행 (창업지원)	9%	4,500 (450)	2,500 (200)	500 (60)	750 (90)
	스케일업	24%	12,000 (850)	2,750 (200)	2,800 (200)	2,800 (200)

- 서울비전2030펀드는 ▶인공지능대전환, ▶바이오, ▶디지털대전환, ▶첨단제조, ▶첫걸음동행(창업지원), ▶창조산업, ▶스케일업 등 7개분야를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하고 2025년 현재까지 총 조성 목표액 5조원 대비 3조 88억원 (60.2%) 규모로 조성됨.
- 또한 현재까지 동 펀드를 통해 총 565개사에 8,792억원이 투자되었고, 매출 7,230억원 증가와 고용 3,294명 창출효과가 보고됨.

<서울비전2030펀드>

총 조성: 3조 88억원(목표 5조원)
서울시 약정액: 1,785억원(목표 3,500억원)
서울시 납입액: 861억원
벤처기업 투자성과: 565개사 8,792억원
서울 소재 투자기업 208개사, 3,038억원 투자
벤처기업 투자효과: 매출 7,230억원 증가, 고용 3,294명 창출

- 다만 펀드 조성 초기부터 투자가 되어온 디지털대전환, 바이오, 첫걸음동행, 스케일업 분야는 목표액을 초과하여 정상 추진 중이나 2024년부터 조성이 시작되어 조성이 더딘 인공지능대전환, 첨단제조, 창조산업은 안정적인 펀드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2. 미래혁신성장펀드의 펀드 미납액과 투자금 회수 지연

- 투자계정은 당초 미래혁신성장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되어 유망기술을 보유한 서울소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성장을 위한 ‘씨드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미래혁신성장펀드는 2019년에 시작하여 2022년까지 총 3조 6,857억원 규모로 조성이 완료되었고, 서울시는 현재 출자 약정액 1,751억원 중 1,653억원을 납입하였으며 연도별 납입 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잔여 납입을 이어갈 예정임.
- 2025년 10월까지 동 펀드를 통해 서울 소재 1,576개 기업에 3조 1천 460 억원이 투자되었으며 투자시점 대비 4조 4,388억원의 매출액 성장과 20,376명의 고용증가 성과를 내었고, 그중 서울시 주목적 분야 698개 벤처 기업에 1조 2,078억 9천만원이 투자되었음.

< 미래혁신성장펀드 주목적 분야 투자실적 >

(단위 : 백만원/개, '25. 6. 30. 기준)

구 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합 계	1,207,890 (698)	182,047 (143)	365,384 (185)	324,885 (202)	335,574 (168)
4차산업혁명	257,378 (163)	59,687 (40)	103,567 (50)	47,741 (40)	46,383 (33)
스마트시티	117,610 (72)	13,019 (12)	44,625 (21)	46,974 (29)	12,992 (10)
문화콘텐츠	175,231 (138)	48,506 (42)	23,197 (18)	24,528 (30)	79,000 (48)
창업지원	384,140 (200)	28,336 (28)	104,085 (55)	130,638 (69)	121,081 (48)
재도전지원	33,759 (27)	4,500 (6)	9,700 (8)	12,000 (7)	7,559 (6)
바이오	239,772 (98)	27,999 (15)	80,210 (33)	63,004 (27)	68,559 (23)
목표금액 달성을	203%	228%	186%	231%	187%

※ ()는 투자받은 기업 수, 중복 제외함

- 동 펀드는 4년 투자기간 후 투자금 회수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019년도에 조성된 펀드는 2022년부터 회수기간에 들어섰고, 2020년과 2021년도에 조성된 펀드도 각각 회수 시기가 도래하면서 투자금을 회수 중이며, 2025년 10월까지 투자금 총 180억 9천 9백만원을 회수함¹⁵⁾.

< 미래혁신성장펀드 투자금 회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25.10.31. 기준)

구 분	합 계 (175,100 약정)	2019년 회수금 (19,250 약정)	2020년 회수금 (48,300 약정)	2021년 회수금 (47,350 약정)	2022년 회수금 (60,200 약정)
합 계	18,099	4,995	9,675	1,444	1,984
4차산업혁명	2,229	745	1,484	-	-
스마트시티	2,354	785	891	676	2
재도전지원	2,208	240	1,580	252	136
창업지원	6,532	647	3,536	509	1,839
바이오	2,731	918	1,803	3	6
문화콘텐츠	2,045	1,660	382	3	-
회수율	10.3%	25.9%	20.0%	3.1%	3.3%

15) 정부모태펀드를 활용한 펀드투자의 경우 조성기간 4년, 회수기간 4년을 기준으로 8년 주기로 운용되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투자시장의 환경과 엑시트(exit) 여건에 따라 출자약정액이 지연 납입 되거나 투자 자금이 조기 또는 자연회수 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실제 펀드 운용 기간은 더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투자금 회수 3년차에 들어서는 2019년도 조성 펀드의 경우 산술상 회수율이 50% 이상이어야 함에도 실제 회수된 금액은 49억 9천 5백만원으로 회수율이 25.9%에 불과하고 전체 펀드의 총 회수율도 10%에 불과함.
- 투자계정은 펀드 수익금을 차기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이므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투자금 회수와 재투자의 유기적 연결이 중요한바, 서울시는 혁신성장펀드의 회수 재원이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 한편 동 펀드는 2026년이 조성 마지막 해로, 총 65억 4천 2백만원이 납입될 계획임.

<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연도별 잔여 출자약정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25.10.31.기준)

조성연도	출자약정액	잔여 출자금(a)*	'26년 납입 예상 금액(b)
2019년	19,250	완납	완납
2020년	48,300	290	115
2021년	47,350	500	89
2022년	60,200	8,318	6,338
계	175,100	9,108	6,542

- 다만 투자기간이 4년임을 감안할 때 2020년 조성된 펀드의 경우 4년 뒤인 2024년에는 출자액이 완납되어야 하나, 2025년 현재 잔여 출자금 2억 9천 만원이 남아있고, 2026년에도 납입 예상 금액은 1억 1천 5백만원에 불과해 완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현상은 2021년도에 조성된 펀드의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펀드 출자액 납입의 지연은 장기적으로 투자금 회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원활한 납입과 자금회수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3. 투자계정의 전출금 규모 확대 조정 필요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신규펀드의 조성과 기존 펀드의 회수 지연 등으로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큰 운용구조이며, 2026년도 출자재원 확보를 위한 전출금도 경제실의 요청액(912억원) 대비 절반에 못 미치는 408억원(44.7%)만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조성 규모가 작년보다 축소됨.

< 2026년도 투자계정 지출계획 >

(단위 : 백만원)

지출계획				
항 목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주요내역
합 계	67,516	112,139	△44,623	-
비융자성사업비	40,326	85,123	△44,797	서울Vision2030펀드 등 조성 및 관리
기본경비	10	20	△10	-
예치금	540	11,452	△10,912	-
예수금원리금상환	26,640	15,543	11,09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 이와 같이 전출금의 미확보로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2026년도 총 지출액 675억원 중 실제 펀드 출자 금액은 400억원(59.2%)에 그칠 예정인 반면에 예산의 상당 부분인 266억 원(39.5%)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¹⁶⁾으로 지출될 계획이므로 투자계정을 통한 실제 사업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특히 서울비전2030펀드의 경우 조성기한 4년 중 마지막인 4년 차에 들어서면서 2026년도에 신규 조성되는 펀드 외 각 연도별로 조성된 모든 펀드에 출자액이 납입 되어야하는 등 지출이 가장 커지는 시기임.

16) 투자계정 조성 당시 총 1,548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용. 2026년 상환 후 잔액은 1,291억원임.

- 특히 서울비전2030펀드의 2026년도 신규 조성 펀드를 위한 출자약정액만 1천 1백억원에 달해 최소 약 692억원의 재원이 부족하나, 2025년도 결산을 통해 2026년 6월경 전입될 예치금도 1백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미래혁신 성장펀드의 투자 회수금의 활용도 2027년경에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시는 출자 및 납입금 재원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경주할 필요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신현두	02-2180-8055
이성찬	02-2180-8061